

2025.08.08.
하계 사회복지 현장실습

소외없이, 연결되는 마을

우리가 함께 '한 여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하계 실습생
김성진, 용도경, 최윤서, 함영서

2025년의 뜨거웠던 여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년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서툴지만 진솔했던 학생들의 첫 발걸음과, 지역사회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입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은,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후배 학우들에게는 실천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람과 마을을 잇는 가장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

| | |
|----------------------------|----|
| 머리말 ----- | 3 |
| 제1장 수료사----- | 5 |
| 김성진 실습생----- | 6 |
| 용도경 실습생----- | 9 |
| 최윤서 실습생----- | 12 |
| 함영서 실습생----- | 16 |
| 제2장 사업소개----- | 18 |
| 제3장 실천이야기----- | 24 |
| 3-1. 사전 OT 및 교육 | |
| -복지요결'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 25 |
| -사업 워크숍----- | 29 |
| -마을 이음 OT----- | 31 |
| -모의사례관리----- | 33 |
| 3-2. 주민만나기 | |
| -장수식당 ----- | 37 |
| -경로당 주민 만나기----- | 40 |
| -주문진 주문마루센터----- | 43 |
| -사람을 만나는 용기 ----- | 50 |
| - 우리동네 주민 만나기 ----- | 52 |
| - 한 글자, 한 웃음으로 피어난 시간----- | 54 |
| 3-3. 단기 사회사업 ----- | 58 |
| -아이들 만나기 ----- | 59 |
| -단기 사회사업 준비 ----- | 66 |
| -단기 사회사업 진행 ----- | 74 |
| 맺음말----- | 82 |

머리말

“누군가에게는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스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란, 바로 그런 따뜻한 손길을 세상에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저는 단기 프로그램이라는 계기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만나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또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호기심, 불안, 기대, 따뜻함... 참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단순한 실습 이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운 이번 시간은, 제가 그동안 책으로만 익혀왔던 복지의 개념을 삶의 언어로 바꿔주는 귀중한 계기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으며 사회 곳곳에 드러난 돌봄의 공백과 관계의 단절은, 복지 실천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함을 체감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지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동과 같은 성장기 대상자들에게는 그러한 작고 진심 어린 관심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만난 아이들 또한 그런 관심을 깊이 갈망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들을 통해 ‘복지 실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마주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삶의 조각들이 있고, 복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울림이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함께해주신 실무자 선생님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진심을 나눠준 아이들과 실습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좋은 계절에,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게 남긴 울림은 앞으로의 복지 실천 여정 속에서도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1장
수료사

수료사

김성진 실습생

길고도 짧았던 실습을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버거웠던 과정들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추억이자 값진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모두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배움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걸 느낍니다. 행동이나 생각에서 실습 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초석이 다져졌다고 믿습니다.

전공 선택 후, 공부하며 “이 길이 나와 맞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안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했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 어느덧 실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미 졸업한 동기에게 들은 실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잠도 못 자고 출근하는 것을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무엇이든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매일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선배들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으며, 1차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한 기억에 억지로 기쁨을 참기도 했습니다. 이후 면접을 준비하며, 친한 선배에게 들었던 “네 말 실력으로 떨어지는 건 말 된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자신 있게 면접에 임했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수많은 전화 중 그 전화가 가장 반가운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의심을 품은 채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예

상보다 훨씬 빠빠한 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부담으로 느껴졌고, “역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일단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모든 일정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피로에 눌려 잘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과 성취감이 보이기 시작했고, 실습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과업이 많아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전공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며, 정신적으로는 흥미와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첫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첫 주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업으로 인해 밤을 함께 새운 적도 많았고, 그 시간 덕분에 서로의 힘듦을 공유하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자극받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또한 일지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사건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항상 “중간만 하자”는 생각을 멀리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몸으로 체득한 것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느낍니다.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실습으로, 직접 움직이고 부딪혀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

달았습니다. 이 배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장에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습생들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주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업무 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지도해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료사

용도경 실습생

무더운 여름, 한달간의 실습이란 에피소드의 마무리.

잔뜩 긴장했던 면접, 어색함이 가득했던 첫 만남, 다사다난했던 실습 과정, 우당탕하며 아이들을 만났던 날들, 그리고 수많은 여정을 지나 마주한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기관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긴장감은 쉽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실로 들어갔을 땐 관장님과 슈퍼바이저 선생님 두 분이 계셨고, 첫 질문은 '1분 자기소개'였습니다. 수없이 준비한 질문이었지만 긴장한 탓에 말이 자꾸만 꼬였습니다.

그때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관장님께서도 "어딜 가든 면접은 있는 법이니 연습이라 생각해봐요"는 말로 긴장을 덜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마칠 수 있었고,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햇살과 가벼운 발걸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습 첫 주는 유독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OT와 교육, 워크숍 등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듣고 배우는 정보가 방대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단기 사회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능동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니, 생각할 거리도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더 깊이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현장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며 머릿속 지식을 하나씩 적용해보는 과정이 훨씬 더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갔고, 저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단순히 기관의 사업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부딪히고, 궁금한 것은 끊임없이 묻고, 몸소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것만으로는 진짜 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이 저에게는 ‘주체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 동안의 실습을 통해 저는 단지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 실습은 분명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나아갈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주체적인 태도’는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태도의 방향

성에서 중요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함께 웃고 고민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 실습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배움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었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계신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습 전반을 지도해 주시고, 사회복지 실천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일깨워 주신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실천'이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실습의 경험 그 이상입니다. 진심으로 많이 배우고, 깊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사

최윤서 실습생

짧았지만 오래 남을 이야기

실습에 끝이 보입니다. 실습을 신청할 때 제발 붙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봤던 게 하루 전날 같은데, 벌써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수료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습 첫날, 실습생들끼리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할 일만 하던 게 생각납니다. 이후 과장님께서 기관 라운딩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침묵을 깨주셨는데, 그때는 라운딩 자체보다도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신 그 배려가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동 중 차 안에서 해주신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과제처럼 억지로 질문을 만들고 꾸역꾸역 물어봤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관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질문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실습을 더욱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었고, 배우는 깊이도 훨씬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다양한 실무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책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실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부터 사례관리 과정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까지, 현장에 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문제점과 강점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실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과의 연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연결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깨닫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아동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의 일상과 고민거리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이 먼저 장난도 치고 질문도 하며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었고,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혼자 조용히 있거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실습생들에게 장난을 칠 때면 “선생님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며 조용히 건네던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서툴렀던 단기 프로그램이었지만, 열심히 참여해주고 반응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준비한 시간이 짧았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 쉽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따뜻한 교감과 신뢰 형성 과정에서 배운 소통의 방법들이 어르신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저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점차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관계를 넓혀가는 과정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실습은 단순한 경험의 축적을 넘어 저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습 기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건네주신 응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부족하고 서툰 저에게도 작은 칭찬과 조언이 실습을 계속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면 이렇게 뜻깊은 경험을 쌓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실습한 동료 실습생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으며 한 단계 더 성

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따뜻하고 전문적인 실천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실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료사

함영서 실습생

4주간의 실습 기간을 벌써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저는 책으로만 접하던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실습 준비를 방학 한 달 전부터 시작한다고 하기에, 저 역시 그 무렵부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찾아보며 실습 공고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집 공고를 확인했을 때는 실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그 덕분에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서류합격 이후 2차 대면면접에 참여했을 때는, 솔직히 제가 한 답변보다 면접관이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낯선 환경에 놓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 매우 긴장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긴장을 눈치채고 먼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이후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에,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고, 그 기쁨으로 실습 첫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시작되고 나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내용과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어 적응이 잘 될지 걱정도 있었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부딪혀보겠어”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보자는 다짐을 하

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온 실습 경험 속에서 저는 실제 복지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요결 공부부터 단기 사회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천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가장 감사했던 점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며 실습생의 입장을 존중해 주셨던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의 존재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정답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셨고, 실습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덕분에 실습을 단순한 과업이 아닌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실습은 제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하게 해주었고,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따뜻한 인연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실습을 허락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장

우리가 함께‘한 여름’ 사업 소개

| | | | | |
|----------|---|------------------|--|--------------------|
| 일 시 | 2025. 7. 28. ~ 8. 8. | | 담 당 | 최윤서, 용도경, 함영서, 김성진 |
| 장 소 | 강릉종합사회복지관 | | | |
| 참여자 | 대상 | | | |
| | 강릉시 내 4~6학년 고학년 초등학생 8명 ※맞벌이, 한부모 돌봄 필요 아동 (우선) | | | |
| 목 표 | 구분 | 목표 | 평가방법(평가도구) | |
| | 성과목표 | 또래관계, 의사소통 역량 증진 | 인터뷰 | |
| | 산출목표 | 횟수 2회/ 2시간/ 총2회 | 실습일지 | |
| 진행 내용 | 구분 | 일정 | 내용 | 장소 |
| | 사전 | 7월14일 ~18일 | ①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비전 확인 ② 아동의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함 ③ 담당자 회의를 통해 방향성 및 사업 전반적인 내용 설정 소외 없이 연결되는 마을 | 행복실 |
| | | 7월 28일 8월 4일 | 아이들과 친해지기 ① 보드게임 ② 수시로 대화 ③ 활동 참여 | |
| | | 7월 28일 | <오늘은 내가 예능PD> ① 프로그램 사전 공지 - 아동이 미션을 직접 구상 - 각자가 생각하는 미션을 종이에 작성 후 제출 ② 미션 선호도 파악 ③ 아동과 관계 형성(보드게임) | |
| | | 7월 30일 | <마을 보물찾기 준비> ① 경로당, 슈퍼마켓 등 직접 찾아가 협력 요청 | |
| | | 8월 4일 | <오늘은 내가 예능PD> - 놀이 기획 ① 팀 구성 - 2인 1조로 구성 - 사다리 타기를 진행 - 협의를 통해 팀 이름 및 구호 선정 ② 규칙 설정 및 역할 분담 -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규칙 설정 - 팀 내 협의를 통해 역할 정하기 - 팀원 간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 미션(놀이) 설정 ③ 준비물 확인 ④ 미션 설명서 작성 - 계획한 미션에 대한 설명 작성 - 대화를 통해 다른 팀과의 중복 미션 조정 | |

| | | | | |
|----------|------|--------------------------------------|---|--------------------|
| | 진행 | 8월 5일 | <오늘은 내가 예능PD> - 진행자(아이)의 놀이 진행 ① 사전에 준비한 미션(놀이) 진행 2인 1조로 진행 ② 각 팀당 25분 미션으로 진행 ③ 아동이 다른 친구들에게 미션 설명 및 진행하기 ④ 점수 차등 분배 진행 | 행복실, 2주공 놀이터 |
| | | 8월 8일 | <마을에서 보물찾기> ① 팀 구성 - 이전 미션 팀과 동일하게 구성 - 2인 1조로 구성 ② 게임 진행 - 담당자가 준 미션 수행 후 다음 장소 미션지 받은 후 이동 - 장소 미션지는 정해진 종이 지급 - 각 장소에서 미션 수행 후 다음 장소 정보와 사진 힌트 수령 - 최종 장소 다각도로 찍은 사진 제공 - 최종 목적지인 놀이터 발견(주공2단지 놀이터) - 놀이터에서 보물 찾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1) 놀이터에 점수 종이 50개, 찬스 종이 5개 투입 (2) 광 20개, 50점 2개, 40점 4개, 30점 6개, 20점 8개, 10점 10개,(총 55개) (3) 찬스 종이 미션을 수행하면 찬스 뽑기 기회를 제공 ① 점수 두 배 ② 점수 1/2 </div> ③ 종결 - 점수 합산 - 시상식 - 순위별로 순위에 대한 소감 발표 예정 - 보상 지급(물총, 상장, 보물상자) | 아파트 단지 내 |
| 준비 사항 | 구분 | 내용 | | 비 고 |
| | 준비물 | 학용품(색연필, 싸인펜), 사무용품(A4용지), 상품(물총) | | |
| | 내부협력 | 담당 선생님 2명 | | |
| | 외부협력 | 나들가게 이주공 마트, 2주공경로당, 주거복지시설, 3주공 경로당 | | |

제3장

Episode.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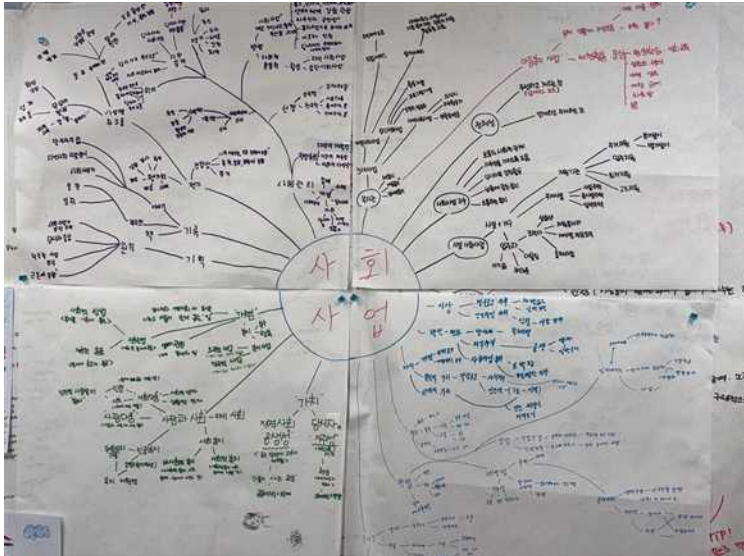
사전 OT 및 교육

복지요결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과제로 복지요결을 읽고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실습이 시작되고 실습생들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가치와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슈퍼비전과 함께 '자주성', '공생성', '전문성'이라는 복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고, 실습생 모두가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를 드러내지 말고, 사회 속에 흐르게 하라”는 문장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를 마치 무언가를 ‘베푸는 일’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철학은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서는 ‘조력자’의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력자는 단순히 내부 직원이 아니라 시설 외부의 인물로, 근무자에게는 여유를 주고, 입주자에게는 삶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복지 사업을 계획할 때 대상자뿐 아니라 종사자의 환경과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사업의 예시를 통해 자주성과 관계 회복이라는 복지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지역을 나서고, 식사를 선택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복지요결을 통해 저희는 복지를 ‘도와주는 일’로만 이해했던 기존의 관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란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복지요결에서 강조하는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다움이란 단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바로 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실습 중 만난 아동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거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사람다움이 발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인 노릇’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힘이자 복지가 지향해야 할 본질이었습니다.

한편, 사회다움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복지요결은 사회다움을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즉 분리나 배제가 아닌 공생이 이뤄지는 사회로 정의합니다. 이는 곧, 약자와 비약자가 구분 없이 같은 수단을 이용하고, 같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획하고 실천하는 복지사업 역시 공생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속에 관계 형성과 상호성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도시락만 배달하는 것이 아닌, 같이 만나고 먹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닌, 사회복지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함께 이끄는 두 축입니다.

‘자기 삶에 주인 되는 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망’이 함께 살아날 때, 비로소 사회복지는 그 이름대로 복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습생들과의 나눔 시간에는 말로 설명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한 만큼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책으로 읽고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언어로 말해 타인에게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이해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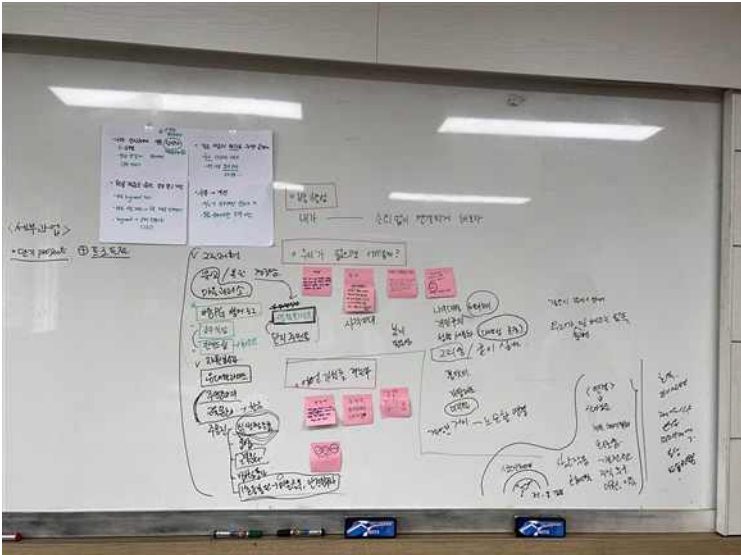
복지요결은 사회복지가 어떤 가치 위에서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길잡이였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지라는 철학은, 앞으로 저희가 걸어갈 실천 현장에서 결코 잊지 않을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바라보게 해준 복지요결은, 저희에게 실습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사람다움을 지키고, 사회다움을 실현해가는 길 위에서 저희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실습 워크숍

공동의 목표를 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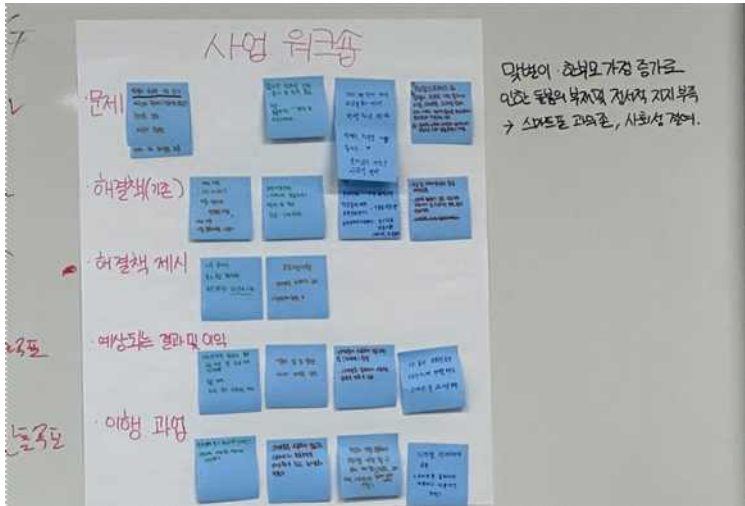
-소외없는 마을을 바라보며



실습 워크숍에서는 실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 기획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이상적인 마을을 주제로 실습생들이 함께 논의하여 의견을 모았고, 실습의 공동 목표를 '소외 없이 연결되는 마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진행할 프로포절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같은 소재라도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면 주민협력(조직화) 사업으로 꾸려 갈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공생성과 자주성이라는 가치 실현에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통해, 물리적 지원보다 관계형성과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였으며, 당사자의 삶에 선택권 보장을 통해 자주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의 의미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저희 실습생들이 당사자 중심의 실천과 가치 기반의 사업 기획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이음 OT

주민조직화와 작은 실천의 힘을 배우다

- 마을이음 2팀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 탐방을 중심으로

마을이음 2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조직화사업과 ESG사업, 그리고 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사업 현장에 대한 시야의 폭을 넓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복지관이 없어도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주민조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이 기능을 상실해도 지역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돕는 힘, 그것이 바로 조직화 사업의 본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사회복지의 역할과 지향점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이음 2팀에서 운영 중인 주요 사업들을 소개받으며, '위대한 라이프', '주민 동아리', '여름방학 프로그램', '그린러너'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대한 라이프' 프로그램은 고립 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고립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립 가구 입장에서는 낙인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며, 사회복지사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그린러너' 사업은 저희 실습생들에게 ESG(환경, 사회)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생필품 제작, 기후약자 대상 서비스 연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약자를 발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한계, 요양보호사를 통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현장의 고민을 듣는 시간은 실습생들에게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0.0001%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실천하는 태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고, 그 자체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습생 중 일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ESG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다른 실습생은 학과 동아리에서 기후난민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기에, 그린러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또한 실습 중에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직화는 단순히 사람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과 일상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하다"는 말처럼, 인사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사회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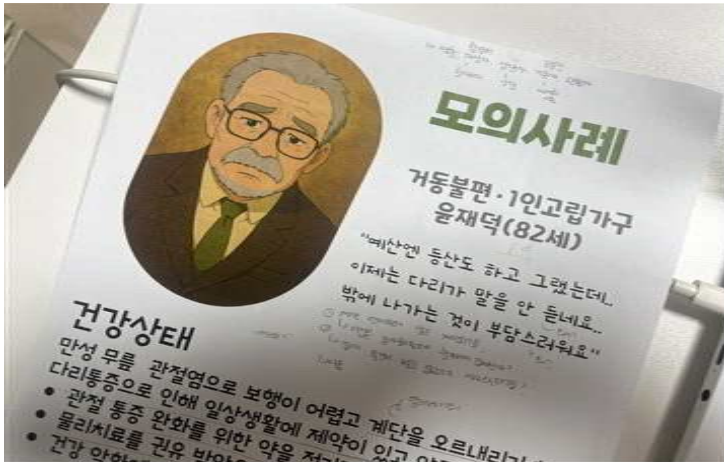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 역시 단순한 아동대상이 아닌,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을 통해 '프로그램 당사자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 접근 방식을 배웠습니다. 실습생들은 실질적인 필요에서 출발한 사회사업이야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사회사업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과 '작은 실천의 지속성'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이음 2팀에서의 경험은, 실습생들에게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제도나 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일상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배움을 안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사례관리

사회복지의 꽃, 사례관리를 해보다

사례관리 모의실습은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설정하여 사례관리 초기상담을 경험해보는 실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실습생들이 각자 상담자, 당사자(CT), 기록자, 관찰자 역할을 맡아, 실제 사례관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상담자, 당사자, 기록자, 관찰자 중 한 역할씩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상담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과 신뢰 형성, 라포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없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노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라는 설정일 경우, 단순한 정보 수집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과 '관찰'이라는 기능 역시 단순한 메모나 시청각 정보 수집을 넘어서, 정확한 해석과 분류,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

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실습은 윤재덕(82세)이라는 가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상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윤재덕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1인 고립가구이며, 가끔 연락하는 아들이 있지만 방문은 드물다는 배경 설정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배경 설정을 완료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습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자 역할을 맡았던 실습생은 처음 질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했고, 말이 막히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질문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메모해둔 질문을 참고해 진행했지만, 대상자가 말을 하지 않거나 반응이 미온적일 때는 상담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말이 없는 대상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발굴하는 실무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상담지를 작성할 때는 대상자가 수급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혼동할 수 있기에, 상담자가 문항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관찰자 역할을 맡은 실습생은 상담자가 대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대상자의 말투, 표정, 반응 속도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감정 상태나 상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보완 질문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이 미묘하여 파악이 어려웠고, 실시간으로 적절한 해석을 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을 통해 어느 정도 관찰의 초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자 역할을 수행한 실습생은 말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발화를 적으려 했지만,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해석은 줄이고 실제로 관찰된 사실만을 적어야 한다는 원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력이 저하된 것 같음”과 같은 표현은 주관적 해석이 섞인 것으로, “어르신이 말을 자

꾸 되물음”과 같이 행동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역할을 맡은 실습생은 상담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자의 질문이 조금만 직설적이거나 빠르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실제 상담에서도 당사자는 질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상담자가 충분한 공감과 경청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상담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대상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모의실습은 이론으로만 접했던 초기상담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역할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실습을 통해 각 역할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상담자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점은 매우 큰 수확이었습니다. 정보 수집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뢰 형성과 라포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감과 경청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상담지는 현 상황을 정리하는 문서이며, 해결 결과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가 해당 기록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느낀 것은 사례관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실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 모의실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3장

Episode.02

주민 만나기

장수식당

“동네 어르신을 만나는 법, 일상의 말로 다가가는 첫걸음”

-인연은 작은 인사부터 시작되는 법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생들은 실습 첫 주에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만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활동 전, 실습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오갔습니다. 낯선 복지관, 처음 뵙는 주민들, 그리고 실습생이라는 어색한 위치에서 오는 긴장감이 컸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괜히 어색하게 느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습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식당 공간이 넓고 어르신들이 분주한 상황이라 단체 인사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테이블을 직접 돌며 인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건네고, 명찰을 보여 드리며 이름을 소개하자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명찰을 직접 들여다보시며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를 기억해주시려는 주민분의 모습에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꼈고, 어르신과의 관계는 단순한 ‘소개’가 아닌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환영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무반응이

거나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실습생들은 주민들과의 만남이 항상 따뜻하고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며, 그렇기에 더욱 준비된 태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말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도 함께 느꼈습니다.



인사를 다 드리고 난 후 진행된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배식과 설거지를 돕던 자원봉사자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오시지 않아 저희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국을 뜨고,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며 직접 활동하니 저희는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을 도우면서 자원봉사자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가 불편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정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주민분들의 특징을 가끔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과 가까워지면,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주민과의 관계 형성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작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 어르신께서 “오늘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직접 요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의 노력과 정성이 어르신의 하루에 작게나마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의 당사자를 특별하고 어려운 존재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동네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특별한 언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시작이자 조직화의 출발임을 배웠습니다.

이번 장수식당 운영 지원과 주민 만나기 활동은 “복지는 당사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과 태도로 주민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경로당

다시 한 번 찾아온 기회

-기회는 직접 만드는 것

며칠이 지나고, 장수식당에서 인사드릴 때 느꼈던 아쉬움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 “만약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등 여러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고 생활복지운동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층에 계신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수박을 나눠주셨다고 하시면서 주고 가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랐지만, 이는 곧 좋은 인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생들끼리 수박을 받은 일을 계기로 인사를 드리자는 의견이 모였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실습생들과 의견을 나눈 후, 저희는 바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똑똑똑’ 노크 후 문을 연 뒤 “저희 이번에 복지관에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수박 나눠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여덟 분의 주민분들이 계셨으며, 어르신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전에 인사하지 않았었나?”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기억해 주셨고, 이에 따라 어제 인사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자 “아 그래요? 반가워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라며 아이스크림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예상치 않게 받은 간식이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인사를 나눈 후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순간 저희는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가능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수박을 받은 감사한 마음을 기회로 삼아 용기를 내어 인사드린 순간, 예상보다 더 따뜻한 환영과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어르신들의 정에 감동했습니다. “기회는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친근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쌓아가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실습 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삶 속에 작은 기억 하나라도 따뜻하게 남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문진 주문마루센터

아름다움 너머

주문진의 주문마루 센터의 경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된 곳입니다. 현재 이 곳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습 2주차엔 주문마루센터에 가게 되었고, 마침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활동 중이시던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르신들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라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어르신을 통해 인사만 했을 뿐인데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르신들에게서 주문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난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복지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마을지도를 통해 표시하는 활동을 현 위치인 주문마루센터에서부터 진행했습니다. 주문마루센터가 위치한 곳은 높은 지대에 있어 도시와 바다

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형형 색색의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이국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는 가파른 경사와 좁은 도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경사진 길을 오르내리며, 이러한 길을 매일 다니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벽화나 바닷풍경이 너무 예뻐 약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에 숨겨진 주민들의 실제 삶의 어려움을 봐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의 민감성을 깨워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집들의 밀집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그리고 거동 불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현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복지자원을 파악하는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뜻밖에도 주민분을 만나 뵙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나 뵈 주민분은 거동이 매우 불편하셔서 거의 집에서만 지내시는 상황이었고, 요양보호사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는 주민분께 식사는 하셨는지, 날씨가 덥지는 않은지 등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눈 맞춤과 짧은 말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햇빛을 봐야 하니 아들분과 함께 외출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아드님이 바빠서 자주 모시고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분을 직접 만나 뵙는 경험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시는 주민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약 통합돌봄 서비스가 빨리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주민분께서 더 자주 외부 활동을 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주민분과 가벼운 대화로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어색함 없이 먼저 다가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만남을 넘어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이동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문제 정의가 곧 사업의 핵심이라는 인사이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활동계획서 작성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정의하고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사업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으며, 이 만남이 단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 속에 담긴 일상의 소소함과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다음 방문에 대한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저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작은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시선에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 주문마루센터에 투입되어 주민 만나기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안전 약자 조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사회복지사

업의 일환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안전 약자들의 안전·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 배경과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을 현황 조사와 연결된 실제 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한 후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섰습니다.



마을 1리 일대를 방문하면서, 먼저 건강 상태, 이동 능력, 화재 시 대응 능력, 가스차단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비상 연락망 여부, 교육 경험 등을 포괄하는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어르신 댁에서는, 인지 기능이 다소 둔해지고 말이 느려지게 된 상태였음에도 조사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집 앞 평상에 앉아 조사를 시작했고, “담배 한 대씩 피실래요?”라는 농담 한마디로 긴장이 풀리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환되었습니다. 건강 상태와 화재 대비 방법, 주거환경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실제 대화는 아침 식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부드럽게 수집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적절히 대화를 유도하고 정리하는 기술을 직접 지켜보며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댁에서는 문을 두드리자 반갑게 맞아주셨고, 안부 인사 후 바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어요”라고 말씀하셨고, 최근 아산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설문조사 이상의 현장의 문제를 체감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마당에 강아지가 맞아주었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칭찬드리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께서는 “아유 우리 아들, 딸 같네 너무 고마워요”라며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 하였고, 이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깊은 감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세 가구에 걸친 주민 만나기와 안전 약자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다양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 설문이 아니라 현장성과 감수성, 실제적인 실천 기술을 함께 체득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재난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문제 정의와 조사 기술, 따뜻한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용기

설문지를 들고 단지로 나가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기획의 시작

단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미숙했던 부분과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 상의 자료만으로 사업을 기획하려 했던 것이 시야를 넓히지 못한 것에서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먼저 간단한 설문지를 제작한 후,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프로포절을 기획하고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회성과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에 설문을 조사하기 위함과 주민 만나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 아래 모여계시던 주민분께 다가가 “안녕하세요. 저 여기 복지관에서 실습 중인 학생입니다”라며 부담 없도록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손주의 유무와 대화 여부 등 간단한 질문을 드리며 조사를 진행했고, 중간중간 일상 대화도 섞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문을 마친 뒤에는 조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더 부담을 드리진 않았는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후 단지 입구에서 만난 두 번째 주민분께는 “혹시 잠시 대화 가능하실까요?”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조사 질문을 이어갔지만, “손주 안 본 지 10년이 넘었소”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순간 당황했지만, 주민분께서 웃으며 넘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10분 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조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관심과 연결로 이어진 대화였고, 이런 경험에서 대화 구조화 준비와 예기치 않은 반응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민 만나기를 통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뿐 아니라 주민의 반응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주민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인사와 진심 어린 설명이 관계를 형성하는 작은 순간이 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조언처럼, 자료보다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기획의 핵심임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예상 반응에 대비하고, 더 나은 대화 준비를 통해 주민과 더 의미 있는 교감을 이어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 만나기

대화의 문을 두드리다

본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우리 동네 주민 만나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자료만으로 사업을 기획하려 했던 미숙함이 있었고, 슈퍼비전 후 실제로 주민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산책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주민분들과 마주하고자, 저희는 “오늘 식사는 하셨는지”, “강릉에 오래 사셨는지”, “강릉에 있는 바다 중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의 간단한 질문과 간식을 준비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계신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지만, 준비한 질문이 전혀 통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말씀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앞에 계시던 요양보호사님께서 “정신장애 있으셔서 대화가 어렵다”고 알려주셨고,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님께 어르신이 주로 나오는 시간대나 활동 내용을 여쭙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쉬웠던 건 다른 주민분들과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이후 퇴근할 때 자주 나와계시던 단지 입구 주차장 옆 인도에 앉아계신 주민분들께 인사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라고 여쭙보니 “내일은 보건소에서 검사 차량이 나와서 안 나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왜 더운데 밖에 계세요?”에는 “더워서 나왔지”라고 슬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층 돌봄카페에 가시면 시원해요”라고 권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기록지 작성을 위해 짧게 인사드린 후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에는 ‘주민 이야기 기록지’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일부 주민분께서는 “집은 너무 답답하고, 여기 나와야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 속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자체가 하루 중 유일한 소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 주민 만나기 활동은 자료 중심의 기획을 벗어나 실제 주민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요양보호사님과의 대화나 입구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에 있기보다 밖에 나와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주민의 말씀은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반응을 예상해 더 유연하고 준비된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웃음으로 피어난 시간

비문해 어르신과 함께한 한글 빙고와 이름 꾸미기

저희는 실습 중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꿈글터’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꿈글터는 비문해 성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글반과 영어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한글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습생들끼리 꿈글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고, 계획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실 수 있을까”에 대해 실습생들끼리 수차례 논의하며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습 요소에 오락성을 결합한 ‘한글 빙고’와 그림을 그려 자신의 이름을 꾸며보는 ‘이름 꾸미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어르신들께 먼저 자모음표와 4x4 빙고판을 나눠드렸습니다. 활동에 앞서 자모음의 개념과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임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습생 4명이 분단을 나눠 일대일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붙어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며 어려움을 느끼시는 모습이었지만, 옆에서 천천히 알려드리고 실제로 함께 진행해보니 점차 웃음이 생기며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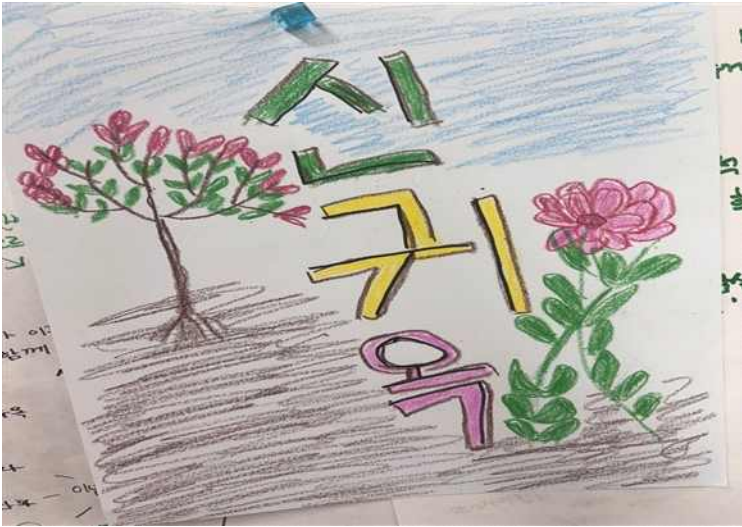
어르신들은 빙고판을 채워가며 자음과 모음을 직접 읽어보셨고, 발음을 묻는 경우에는 실습생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며 도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처’ 발음을 어려워하시는 분께는 “처음처럼의 처”라고 알려드렸고, ‘한’은 “한글의 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르신들이 음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익히는 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빙고게임에 '상품' 요소를 더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몰입도와 경쟁심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었고, 이로 인해 학습이 반복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재미 있었다”, “다음에 또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하시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글 빙고가 끝난 후 저희는 다음 프로그램인 이름 꾸미기를 운영해야 하는 기존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희는 남은 프로그램을 더 진행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 세 분의 어르신께서 “시간이 괜찮다”며 남아주셨고, 덕분에 준비해온 두 번째 프로그램인 ‘이름 꾸미기’ 활동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고, 주변을 자유롭게 색칠하거나 그림으로 꾸며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시 자료를 보여드린 후, 이름 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습생이 시범을 보여드리고 함께 따라 써보도록 도왔습니다. “나비를 그려보시는 건 어때요?”, “꽃이나 나무를 그려보는 건 어떠세요?”와 같은 식으로 상상을 이끌어드리며,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였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림 그리는 건 오랜만인데,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며 활동을 즐기셨고, 완성된 이름 그림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미술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름을 정확히 쓰고 꾸밀 수 있었던 성공 경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놀이와 창의성을 결합한 방식이 어르신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습 중심의 정적 활동만을 선호하실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으며, 경쟁 요소가 있는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획 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학습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 접근이 중요함을 체득하였고, 준비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요구된다는 점을 실습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배움의 과정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이 어르신들께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자의 눈높이와 흥미를 존중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한글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3장

Episode.03

단기사회사업

아이들 만나기

함께 땀 하루, 더 가까워진 시간

저희가 진행할 단기사회사업의 대상인 아이들과 첫 만남에 놀이 활동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드리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줄 알았지만, 잠시 망설이시다가 아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한 명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기회를 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팀으로 나뉘어 다리 사이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으며, 먼저 연습 게임으로 분위기를 익혔습니다. 초등 4~6학년 아동들은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공을 뺏거나 몸을 날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현장이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게임이 시작되자, 온몸으로 공을 막는 친구, 두 눈을 부릅뜨고 공을 잡으려는 친구,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아동들의 에너지를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였고, 두 번의 게임 후에

는 체력이 방전될 정도였습니다.

짧은 쉬는 시간 후, 다음 주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 설명에 쉽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흥미 유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로부터 미션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의 활발한 에너지와 승부욕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첫 아동 만나기 활동은,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역동성을 직접 경험하며 단순한 관찰을 넘어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활동과 실제 현장은 많이 달랐고,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과 준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대할 때 보다 예의와 배려를 갖추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이후에도, 일과시간 전이나 시간이 남을 때 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이동하며 다양한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르신과 대화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편안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이 기대되었고,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안 아동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중 한 남아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앞접시나 앞치마가 필요하면 스스로 가져가고, 물이나 반찬이 더 필요하면 혼자서 챙겨 먹는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친구였습니다.

이동 중 차 안에서 우연히 뒤에 앉게 된 그 친구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친구가 말을 걸려 할 때도 자기가 먼저 말해 이야기를 이어가 결국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들어주자, 그 친구는 요즘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주었고,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화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가정사까지 알게 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괜찮아?”라고 묻기가 어색했고,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어떤 이야기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도착한 곳은 강릉의 놀이시설 ‘원더스카이’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다보니 아무것도 몰라서 아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아이들이 먼저 출발하면서 저희를 기다려준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감동했습니다.



놀이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오랜만에 역동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지친 체 모습을 보고 운동 체력과 노는 체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 15분 정도는 허리에 담까지 들러 앉아서 쉬었고, 아이들과 같이 앉아 놀다가 다친 이야기나 아직도 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이 후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동해, 메뉴를 이미 정했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는 어떤 거 골랐어?”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메뉴 추천을 부탁했고, “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너희들이 추천해주는 거 먹을게”, “그럼 OO요!”, “OO는 어때요?”, “근데 나는 이미 말씀드려서 바꿀 수가 없어.”, “왜요? 바꾸면 되잖아요?”, “어른은 함부로 못 바꿔.”, “그럼 저희가 말해드릴게요! 저희는 어린이잖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저를 위해 대신 말씀드려 메뉴를 바꿔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한 것은 말 한마디였지만 저를 위해 해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후 밖에 있는 천막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마라탕, 탕후루, 티니핑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일가견 있는 분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디 근처에 사는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어떻게 통학하는지 물어보며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중에서 만든 향수의 냄새를 맡아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

향수 8종을 양팔에 레이어드하고,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징을 강조하면서 정말 좋다고 칭찬해주니 부끄러워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향기는 8가지였지만,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걸 누군가 칭찬해주면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하고 활기찬 에너지, 스스로 움직이는 책임감, 그리고 순수한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놀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과 체력 소모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추천해준 아이들, 향수를 칭찬해 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동들과 함께 다른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먼저 아동들과 만나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이동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닭갈비 식당에서 아이들이 핸드폰만 사용하며 소통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 저는 아이들끼리 소통하도록 다가갔습니다.

물도 갖다 주고 장난도 치며 “음료수 마시면 볼링 점수 10점 주는 거다!”라고 유머를 섞어 대화를 시도했지만, 반응을 보인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차례 더 대화를 시도했고, 이후에는 전보다 더 유쾌한 분위기로 점심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볼링장으로 향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과 함께 팀을 나눠 게임을 시작했고, 제 팀의 아이들은 볼링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볼링공 잡는 방법부터 던지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곧 게임이 시작되자 아동들과 함께 볼링을 치며 장난도 치고 웃으며 게임에 몰입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우면, 저는 “당연하지, 쌤 열심히 할게!”라며 호응했습니다.

초반에 일부 아이가 실수를 해서 속상해하자, 저는 달래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곧 바로 힘을 내서 뛰어난 자세로 게임에 임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강점인 ‘탄력성’을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파이팅하며 볼링을 치다 보니 140점을 넘기며 전체 1등을 했고,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해요”라며 상대팀에 자랑하러 갔습니다. 내심 뿌듯하면서도, 아이들이 단순한 승리에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볼링이 끝난 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메뉴를 고르고,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이야기하며 기다렸습니다. 민트초코파와 반민트초코파로 나눠어 토론 아닌 토론을 나누며 활기차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활동은 아이들의 활기와 승부욕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때 조용하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바꿔보려 했던 시도, 볼링장에서 함께 경쟁하고 격려했던 순간, 아이스크림을 같이 고민하며 공감했던 경험들은 모두 생동감 있는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준비

우리가 함께 ‘한 여름’ 이야기

저희는 소외 없이 연결되게 하자는 공동의 방향 속에서, 단순 놀이 제공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교육적 의미도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실내·실외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래 경연’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고,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참여하게끔 연결하는 기획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놀이활동을 교육적 의미와 결합하려는 기획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연습곡을 정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친구 응원 및 과정 중심 평가까지 포함한 노래 경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첫날 첫 시간에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과의 교류가 더 즐겁다’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기 위해 주민 만나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장수식당 자원봉사자분들과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향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기획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과정 중심 평가를 경험하며, 친구를 응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스브레이킹 중심 활동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지만, 세부 논의 끝에 공생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SMART 기법 기반의 구체적 목표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히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협동해 노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소외 없이 연결되고 자기 주도성을 끌어내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동료 실습생들과 슈퍼바이저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제안이 전체적으로 연결성이 부족하고 성과목표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구상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나온다”는 조언을 들으면서 사업기획 접근 방식에 대한 불안감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회성 향상 및 주도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SMART기법을 통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게, 그리고 달성 가능하게, 새롭게 설정하고, ‘가사 속 풍경’ 협동 활동을 구체화하며 기획을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협동성을 중심으로 한 세부 활동은 노래 가사 한 문장을 주제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뮤직비디오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이 팀을 이루고, 의견을 나누며 도화지에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과 협동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동료 실습생들과의 회의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 Check-In 활동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되었고, 공동의 방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피드백 이후 실습팀원들과 다시 방향을 잡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활기차게 기획을 이어갈 수 있었고,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과 목표가 명료해지는 경험은 매우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실행계획서 작성 중 잘못된 방향에 대해 스스로 감정이 담긴 설명을 한 후 사과했던 일, 그리고 다른 실습생의 설명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프로젝트 설계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 세부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 후에 얻어가길 바라는 바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기획의 핵심임을 느꼈고, 실행계획서 작성 중의 불안감이 동료와의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현실과 기대 사이를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번을 다시 기획하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단기사회사업 프로그램은 총 두 가지로, '오늘은 내가 예능PD'와 '보물찾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이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능PD'는 아이들이 미션을 직접 미션을 구상하고 기획해 진행하는 놀이 활동입니다.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이 구상한 놀이 활동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 조율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고 진행하면서 주

인노릇 할 수 있게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각 조에서 준비한 놀이활동을 진행해 순위와 점수를 부여하면, 다음 놀이활동인 실습생들이 진행하는 ‘보물찾기’ 프로그램과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마을 내에 있는 장소에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놀이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기획하고 미션 형식으로 실행하는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획하는 활동에 자주성과 성취감을 담는 방향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어서 어떤 장소에서 이 활동을 수행할지 직접 탐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러 후보 장소(2단지 놀이터, 남대천 공터, 체육공원 등)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후, 2단지 놀이터부터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는 적당히 넓고 그늘도 적절했으며, 거리도 가까워 활동 장소로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대천 공터와 체육공원을 답사했지만, 공터는 그늘도 없고 앉을 곳도 없이 차량도 있어 부적합하였으며, 체육공원은 너무나도 넓고 혼란 중이라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탐색했던 2단지 놀이터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소답사를 통해 실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온라인 사진만으로 판단했던 공간이 실제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실감되었으며, 사전 답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깝고 적당히 넓은 2단지 놀이터를 선택하게 되었고, 활동 전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의 성공과 아이들 안전, 진행 용이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놀이 활동은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하며 마무리를 하며 실습생들의 공동의 방향성인 ‘소외없이 연결되는 마을’ 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진행할 단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놀이활동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PPT 자료를 활용해 활동 목적을 설명하려 했지만, 빔프로젝터 화면을 본 한 아이는 “공부하는 거예요? 싫은데…”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실내에서 조용히 집중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설명을 이어가야 했고, 흐름이 끊기며 피로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접근 방식을 바꾸어, “이건 재미있게 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라고 말하며 좀 더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직접 마주한 오늘의 경험은 저희에게 많은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틀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 큰 흥미와 열정을 보였고, 특히 승부욕이 강한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설문조사는 결국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이후 진행

될 본 프로그램이 2시간 안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도 생겼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규칙과 틀을 미리 정하라’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사전조사 시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계획에 맞추기보다 아이들의 특성과 분위기를 고려해 더 유연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습생인 저희가 먼저 해당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주민분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 상호작용할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저희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단순한 말로 요청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협조문과 소정의 선물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실습 기관, 활동 목적, 진행 일시, 필요한 협조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보물찾기 미션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도 담았습니다.

실습생들은 역할을 나누어 각각 슈퍼마켓, 미용실, 경비실, 경로당 등

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저는 미용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이수정 선생님과 마주쳐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 “근처 2주공 경로당도 괜찮은 장소일 것 같아요”라는 뜻밖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를 알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계획대로 미용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미용실은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을 둘러봐도 운영 중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 협조 요청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이 경험이 오히려 계획을 더 세밀하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실습생들과 다시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던 중, 제가 방문했던 미용실의 부재로 인해 대체 장소를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앞서 들었던 2주공 경로당이나 인근의 다른 장소들도 후보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협조 요청이라 해도 예의를 갖춘 문서와 사전 안내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소 협력 요청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결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소 긴장되고 아쉬움도 남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 일정 마지막 날에 하는 단기사회사업 프로그램 ‘보물찾기’를 위해 다시 한번 협조한 장소에 방문했습니다. “저번에 방문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래, 기억나지. 무슨 일이야?” 전에 뵈었을

때보다 더 친근하고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 쉽게 보실 수 있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부담스럽지 않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악수 한 번하고 가요.” 이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다르게 금새 익숙해져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남은 프로그램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진행

여름, 아이들과 마을을 잇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기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당일, 단순한 놀이 제공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내내 어떤 놀이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런 고민 끝에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먼저 모둠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 활동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놀이 활동을 구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여 사전에 조사했던 놀이 활동을 예시로 보여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져 만들어진 놀이 활동은 ‘금칙어 게임’, ‘미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 감고 술래잡기’ 등 다양했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될 금칙어 게임에 대해 만든 조의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직접 만들었는데, OO이는 진행해보고 싶어?”,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는 물음으로 돌아왔습니다.

“OO이가 진행하면 여기서 왕이야. 모두가 OO이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해주시니 “그럼 저 진행할래요!”라고 하며 진행자로 나섰다. 설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지를 보이며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진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보다 어리다고 말을 잘 안 듣거나 주의력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며, 진행자로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거들어주었고, 스스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야외로 이동해 ‘미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술래는 벽에서 미션을 말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미션을 안내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나무에 서서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바로 큰 소리로 미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양이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듣고 취하는 포즈가 각각 달랐습니다. 머리 위에 고양이 귀를 표현한 아동도 있었고, 얼굴에 고양이 수염을 표현한 아동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다가 느낀 것은 하나의 단어로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작스레 든 생각을 가지고 마저 진행했습니다. “강아지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활기찬 마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몇몇 아이는 부상을 당해 쉬는 시간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느꼈습니다.

활동 중간에 그늘에서 끝말잇기 등을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원래 계획했던 눈 감고 술래잡기는 얼음땀으로 대체하였고, 이후에도 아동이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 상황이 발생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아동 상태를 살폈습니다. 벤치에 대기시킨 후 나머지 게임을 마무리하고, 복귀 후 담당자 선생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서는 금요일에 진행할 미션에 대한 설명, 노래를 듣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아이들을 귀가시켰습니다. 프로그램 과정 중 실습팀 내 소통 미흡이나 예상과 다른 전개, 그리고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해 실습생들과 공유하며, 다음 프로그램을 더 잘 준비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놀이’가 단순한 시간이 아닌, 협동·소통·주체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진행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예기치 못한 부상 상황 속에서 안전과 유연한 대처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들의 에너지와 상황에 맞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실습생 간의 소통과 역할 조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따뜻한 마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아이들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습생들과 함께 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마지막날에는 아이들과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지막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한 보물찾기를 넘어, 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동선을 마을 곳곳으로 설정하고, 실습생들과 함께 여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준비한 미션은 ‘인물퀴즈’, ‘과자이름 맞추기’, ‘나라이름 맞추기’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고, 조 구성원 모두가 정해진 미션을 성공해야 미션을 수행할 장소로 향할 수 있는 제비뽑기를 제공합니다. 각 조는 실습생들과 함께 지도를 보며 자신들의 경로를 확인해 출발했습니다.

조별로 배정된 장소는 3주공 경로당, 슈퍼마켓, 2주공 경로당, 주거복지상담실 등 실제 마을 내 주요 공간들로 각각 이동해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후, 어르신들의 수락을 받은 경우에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수줍게 인사하고, 미션을 진행하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대 간의 작은 소통의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할 때마다 조는 최종 보물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단서가 담긴 사진 조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모아진 사진 조각을 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추리를 이어갔고, 지도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2조가 가장 먼저 최종 장소로 추정되는 2단지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터 이곳저곳을 살살이 뒤지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고, 숨겨둔 점수 종이를 발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조들도 도착했고, 점수 종이를 찾기 위한 치열한 탐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점수를 비교하며 웃고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마무리의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순위별로 상품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중 있었던 재미있었던 순간, 어려웠던 미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인상 깊었던 사람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은 단순한 놀이의 장을 넘어, 순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주체성과 협동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고,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돌발상황에 대비한 준비의 중요성과, 실습생 간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기억은 제게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실습은 단순히 현장을 '경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성장'이라는 이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회복지가 실제 사람들의 삶과 만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천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매 순간을 성찰하며 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출발점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던 아이디어들이 실습생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닦쳤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실무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때마다 받은 피드백은 프로그램을 한층 더 단단하고 효과적으로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질문과 피드백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아이들의 웃음과 참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주체적인 실천'이란 단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며, 그 만남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언제나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실무자 선생님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실습 내내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동료 실습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배움과 울림은 앞으로의 사회복지 실천 여정 속에서도 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성찰을 바탕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더 나은 실천을 고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